■ 민족문화연구 제92호(2021.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29-450.
http://doi.org/10.17948/kcs.2021..92.429

‘이음절 한자어+되다’의 분류와 중국어 대응 유형 분석

장선우(張仙友)*

목 차

1. 들어가며
2. ‘한자어+되다’의 구문 유형
3. ‘한자어+되다’의 중국어 대응 유형
4. 나오며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어에서 ‘이음절 한자’로 구성된 명사에 ‘-되다’가 붙어 만들어진 ‘한자어+되다’ 동사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중국어에 피동 표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피동 표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한국어 ‘한자어+되다’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중국어 대응형에 피동 표지 유무 규칙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한자어+되다’는 주로 ‘N1이 -되다’, ‘N1이 N2에 -되다’, ‘N1이 N2로 -되다’, ‘N1이 N2에게 -되다’, ‘N1이 N2과 -되다’, ‘N1이 N2에서 -되다’ 등 6가지 논항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논항구조에 따라 논항N을 담당하는 의미속성도 달라지는데, 주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로 '사람, 단체, 구체, 추상, 사건, 공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통해 중국어 대응 유형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는 무표지 피동이 가능한 언어로, 논항구조와 논항N의 의미속성이 피동 표지 유무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어 '-하다'가 구성하는 논항구조와 비교하여 '-되다'의 논항구조가 달라지면 중국어에도 피동 표지가 있는 형태로 대응됨을 밝혔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어는 어휘 활용형을 통해 통사 특징을 나타내는 언어이지만, 중국어는 어휘 형태 변화가 적은 고립어로 논항구조를 통해 통사 특징을 나타내는 언어임을 확인하였으며 논항구조와 의미를 통해 두 언어 간의 대응에 규칙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어학 교육 외에도 자동 번역 분야 등에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논항구조, 의미속성, 한자어, 피동 표지, 중국어 대응어.

1. 들어가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한자어'에 '-되다'가 붙는 어휘에 대한 중국어 대응 유형을 분석하고 그 규칙성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이음절 한자어'에 '-되다'가 붙는 어휘에 한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어 '-되다'는 피동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를 능동사를 파생시키는 파생접사로 본다면 이에 대응하여 피동사 파생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접사로 '-되-'를 고려할 수 있다.[1] 그런데 한국어 '-되다'를 중국어로 대역할 때 반드시 피동 표지가 있는 것이 아니며, '-하다' 어휘와 같은 어휘로 대응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건설(建設)'은 '-하다' 또는 '-되다'와 결합하는 경우 중국어 대응형에 모두 피동 표지가 없으나 '제거(除去)'는 중국어 대응형에 피동 표지 유무 차이를 보인다.[2]

(1) ㄱ. (공장을) 건설하다 建成(工廠)

1) 최윤, 「파생 동사 한자어 어근의 동사성과 논항구조」, 『어문론집』, 80, 중앙어문학회, 2019, 1-107면.

2) 본고에서는 구절 단위의 대응 상황을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문장 번역은 문맥 안에서의 의미에 근거하기 때문에 통사적인 요소가 등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ㄴ. (빌딩이) 건설되다 (大樓)建成
(2) ㄱ. (지뢰를) 제거하다 清除(地雷)
ㄴ. (먼지가) 제거되다 (灰塵)被清除

예(1)의 '건설되다'에서는 피동 표지 '被'가 없으나, 예(2)의 '제거되다'에는 '被'를 써서 피동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되다' 어휘에 대한 중국어 대응 유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거나 번역을 할 때 어떤 경우에 피동 표지를 써서 나타내야 하는가에 대한 규칙이 없으면 정확한 번역을 하기 어렵다.

중국어는 용언의 형태 활용이 거의 없는 언어로 피동 표현은 주로 단어의 형태 활용이 아닌 피동 의미를 지닌 개사 '被', '由' 혹은 동사 '遭' 등을 사용하여 피동 구문을 구성한다. 반면 한국어는 '-되다'와 같이 용언 활용형을 사용하여 피동 의미가 더해진다. 이렇듯 언어 간의 문법 체계가 다르므로 한국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찾기 위해서는 단어 층위의 비교가 아닌 더 심층적인 통사 층위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고는 두 언어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논항구조를 통해 두 언어의 차이점을 논하고, 한국어 '-되다'에 대한 중국어의 대응 형태가 어떠한 규칙성을 갖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 '한자어+되다'의 구문 유형

본고는 한국어 '-되다'에 대한 중국어 대응 유형을 찾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다음 두 가지 방면에 국한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어 '한자어+되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한중 번역의 측면에서 논의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에서 '한자어+되다'에 대해 논의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중 '되다' 의미를 분석하면서 '한자어+되다'를 고찰한 논의에서,[3] 특히 '한자어'의 특징에 대해 '시공간 구체명사', '사건, 상태, 시간명사', '감정 명사' 세

3) 이기동, 「동사 되다의 의미 분석」, 『동방학지』, 72,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1, 227면.

부류로 나누었는데, '되다'는 주로 '사건, 상태, 시간' 중에서도 [+변화][+사건] 의미의 한자어와 결합한다고 지적하였다. '한자어+되다'의 의미에 대해서는 주어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외에 '되다'에 피동적 변화 이외에는 다른 뜻이 없다고 지적한 논의도 있었는데, 자연적 변화에 따른 피동적 상황이 될 때 '되다'가 쓰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강제적인 행위 혹은 이해관계 등이 개입된 피동에는 '되다'가 잘 쓰이지 않음도 제시하였다.[4] 즉 자발적이지 않은 변화를 나타냄을 보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자발적으로 해산되다'와 같은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5] 한편 한자어 내부를 분석하며 '동사성' 성분이 있어야 동사로 파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 관점도 있었는데, 이러한 동사성 명사는 분명한 어휘 내항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능동 접사 '-하-'와 상대되는 피동 접사 '-되-'에 의한 논항 구조 변화를 설명하였다.[6] 종합하면, 한국어 '한자어+되다' 동사에서 피동 의미는 '-되다'에서 비롯하고 있으며 그 논항 구조는 '한자어+하다'에 기반하여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한자어+되다'를 중국어와 대조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대부분 문장 층위에서 가능한 번역 형태를 나열하고 있다. 주로 '-되다'가 '피동 표지가 있는 피동문', '의미상 피동문', '由/經由~' 구문 등으로 여러 각도에서 가능한 대응을 살펴보았다.[7] 그러나 '-되다'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고, '-되다' 동사 자체의 대응형이라기보다는 문장에서의 대응 가능한 구문을 모두 제시하여 수의적이다. 그럼에도 이 논의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되다'를 모두 피동형으로 번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되다'의 대응형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또한 어떠한 경우 중국어에 무표지로 대응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

4) 우인혜, 「"하다" 따위 용언의 피동 문제에 대하여」, 『새국어교육』, 48, 한국국어교육학회, 1993, 165-190면.

5) 유혜원, 「중립동사 '명사-하다'에 대한 연구—'명사-되다', '명사-시키다' 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57, 한국어학회, 2012, 291면.

6) 최윤, 앞의 글, 99-121면.

7) 王芳, 『韓國語"漢字詞+되다"與漢語的對比研究』,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Mongolia-Korea Academy and Culture Forum, 2016.

이러한 제반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고는 한국어 '한자어+되다' 동사가 수반하는 명사 성분의 의미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어휘 층위에서는 한국어의 '-되다' 동사 자체로 중국어에 대응되는 어휘를 찾기는 어려우며, 문장 층위에서도 앞뒤 문맥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응 관계를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언어 간에 공통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인 심층 구조를 통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동사가 어떠한 논항구조를 구성하며, 결합하는 명사 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중국어 번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분석 대상은 한국어 '이음절 한자어+되다'에 제한한다. 중국어에는 이음절 단어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간섭을 받아 한국어 한자어를 그대로 직역하는 오류가 종종 있다. 그중 일부 '-되다'는 사용 빈도도 낮게 나타나며 '-하다'로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때도 있으나 이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본고는 '-되다'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규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으며, 번역자나 기계 자동 번역의 관점에서 이미 사용 중인 '되다'를 번역하기 위해서, 또한 사전에 등재된 어휘에 대한 대응형을 명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단 다음의 경우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첫째, '고유어+되다'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한자어가 아니라면 언어 간 간섭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손질되다, 가늠되다, 버릇되다' 등이 있다. 둘째, 중국어 단어는 주로 이음절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욕되다, 곱되다, 가압류되다, 뒤처리되다' 등 이음절이 아닌 경우 또한 제외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중학습사전』(가제)에 수록된 '이음절 한자어+되다' 총 305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8] 이렇게 수집된 '이음절 한자어+되다' 동사가 구성할 수 있는 논항구조를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9]

---

8) 『한중학습사전』(가제)은 중급 수준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을 위한 사전으로 한국어 교재, 한국어 능력 시험 등에 수록되어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어휘를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9) 한국어 단어의 의항 및 문형 정보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참고하였으며, 조사 이형태 표기 '~가', '~으로', '~와' 등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표 1〉 논항구조에 따른 분류

논항구조	개수(개)	백분율(%)
N1이	304	67.1
N1이 N2에	64	14.1
N1이 N2로	37	8.2
N1이 N2에게	19	4.2
N1이 N2과	24	5.3
N1이 N2에서	5	1.1
합계	454	100.0

한 어휘에 의미항이 여러 개인 경우이거나, 두 개 이상의 문형이 가능하기도 하므로 이를 각각 계산하여 총 454개 경우의 수가 나왔다. 예를 들면 아래 예(3)과 같이 '처리되다'는 두 개의 의미를 갖는데, 그 동사 의미에 따라 구성하는 논항구조도 다르다.

(3) ㄱ. 사건이나 사무 등이 무엇으로 마무리 지어지다
ㄴ. 무엇이 어떤 작용을 거치다

다시 〈표 1〉을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논항구조는 'N이 -되다' 구문으로 전체 454개 중 304개로 집계되었다. 다음은 'N1이 N2에 -되다' 구문으로 64개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후보자가 직위에 당선되다, 무엇이 어디에 활용되다' 등이 있다. 그다음으로 많은 것은 'N1이 N2로 -되다' 구문으로 37개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다른 것으로 인식되다, 사람이나 사물이 무엇으로 취급되다' 등이 있다. 'N1이 N2에게 -되다' 구문은 19개, 'N1이 N2과 -되다'는 24개 집계되었다. 각각의 예를 들면, '사람이 경찰에게 체포되다', '무엇이 다른 것과 차단되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N1이 N2에서 -되다' 구문은 5개에 불과했다. 예를 들면, '무엇이 무리에서 제외되다' 등이 있다.

이렇듯 '-되다' 동사가 구성하는 구문이 다양하다. 그러므로 '한자어+되다'가 중국어와 대응하는 유형을 찾기 위해서 동사와 공기하는 명사 성분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다음 3장에서는 위의 논항구조에 따라 중국어

대응형에 피동 표지 유무를 살펴보고자 한다.

3. '한자어+되다'의 중국어 대응 유형

논항구조에서 동사는 논항(이하 N)과 의미·통사적으로 제한된 결합을 하기 때문에 논항을 담당하는 명사의 의미속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명사의 의미속성은 문장 분석 시의 구조적 모호성과 단어 의미 모호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10] 또한, 중의성을 해소하며 기계 번역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11]

논항과 관련된 의미 요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논항을 담당하는 명사의 의미속성(semantic feature)이며, 다른 하나는 논항 자체의 의미역(thematic role)이다. 사실상 한국어에서 의미역은 '조사'에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하나의 '조사'가 복수의 의미역을 나타내기도 한다.[12]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동사와 공기 관계에 있는 명사의 의미속성이 중국어 대응 표현과 연관성이 더 크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명사의 의미속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N의 의미속성은 다음 [표2]와 같이 크게 5개의 분류를 두고, 하위분류로 다시 세분하였다.[13]

〈표 2〉 N의 의미속성

대분류	생물		비생물		과정		공간	시간	대상
소분류	사람	단체	구체	추상	사건	현상	장소	시간	무엇

위 〈표 2〉의 의미 분류를 기준으로 한국어 '-되다'와 결합하는 N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논항구조는 같은데 N의 의미속성이

10) 조평옥・옥철영, 「의미속성에 기반한 한국어 명사 의미 체계」, 『정보과학회논문지(B)』, 26-4, 한국정보과학회, 1999, 585면.
11) 王惠・詹衛東・俞士汶, 「"現代漢語語義詞典"的結構及應用」, 『語言文字應用』, 第1期, 2006, 140p.
12) 본고 예시(4)와 (5)에 명시한 바와 같이 조사 '로'는 처소, 결과 등의 의미역을 나타낸다.
13) 본고에서 제시한 명사의 의미속성 분류 기준은 조평옥・옥철영, 앞의 글; 王惠・詹衛東・俞士汶, 앞의 글 및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서 제시한 의미 정보를 참조하여 재분류하였다.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4) 무엇이 어디로 전파되다. (N2: 장소)
(5) 무엇이 어떤 상태로 변화되다. (N2: 추상)

예(4)와 예(5)는 모두 'N1이 N2로 -되다'이지만, N2는 각각 '장소'와 '추상'으로 의미속성이 다르다. 이에 본장에서는 먼저 N의 의미속성을 기준으로 논항구조를 다시 세분류하였다. 그리고 앞 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되다' 동사는 주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국어 대응형에 피동 표지인 '被' 유무에 따라 다시 나누어 구문별 대응 상황을 살펴보았다. 중국어 대응형은 국립국어원 『한중학습사전』을 참조하였다.[14)15)]

1) 'N1이 -되다' 구문

'-되다' 동사 중에서 논항N이 1개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조사 '~이'와 결합하여 구문을 이루며 총 304개이다. 그중 중국어 대응어에 피동 표지가 없는 경우가 225개이고, '被' 등의 표지가 있는 경우가 79개이다. 결합하는 N의 의미속성에 따른 분포를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3〉 'N1이 -되다' 구문과 N1의 의미속성

N1	생물		비생물		과정	공간	대상	
	사람	단체	구체	추상	사건	장소	무엇	합계
무표지	8 (2.6%)	9 (3%)	39 (12.8%)	95 (31.3%)	32 (10.5%)	3 (1%)	39 (12.8%)	225 (74%)
피동 표지	5 (1.6%)	4 (1.3%)	17 (5.6%)	29 (9.5%)	10 (3.3%)	2 (0.7%)	12 (3.9%)	79 (26%)

14) 『한중학습사전』은 『한국어기초사전』을 기반으로 중국어 대역이 제공되는 온라인 사전이다. 2020년 대외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15) 번역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언어 간에 대응형은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어휘 의미뿐만이 아니라 통사적, 화용적인 요소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피동 표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 붙이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무방한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고는 통사 층위에서의 대응을 기준으로 하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 실제 사용되는 문장 용례를 대상으로 텍스트 층위에서의 대응 양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합계	13 (4.3%)	13 (4.3%)	56 (18.4%)	124 (40.8%)	42 (13.8%)	5 (1.7%)	51 (16.7%)	304 (100%)

이 구문에서는 N1의 의미속성이 '추상, 구체, 무엇, 사건'의 순으로 '-되다'와 주로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상'이 총 124개로 40.8%에 달했다. [-생물]인 '구체'와 합하면 절반이 넘는 180개로 59.2%를 차지한다. 반면 '장소, 사람, 단체'는 상대적으로 '-되다'와 결합하는 경우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생명] 의미속성을 갖는 '사람, 단체'는 각각 4.3%, '장소'는 1.7%에 그치고 있다.

중국어 대응형의 피동 표지 유무에 대한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중국어 대응형이 무표지인 경우가 74%로 피동 표지가 있는 경우인 26%의 세 배 가까이 많았다. 이는 중국어가 무표지 피동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표지 피동문'(無標記被動句)은 '피행위자'(Patient)가 주어 자리에 올 때 아무런 피동 표지가 없는 구문을 말한다.[16] 예를 들면 '那蘋果扔了(그 사과는 버렸다), 那蘋果吃了(그 사과는 먹었다), 那杯子打破了(그 컵은 깨졌다), 那衣服洗得幹幹淨淨(그 옷은 깨끗하게 빨렸다)' 등이 그러하다.

이렇게 무표지 피동이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중국어 대응에 피동 표지를 해야 하는 걸까? 이는 'N1이 -되다'와 비교하여 '-하다' 동사에 자동사 기능이 있는 것에 주목하면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7]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6) ㄱ. 희생하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가진 것 등을 바치거나 포기하다.
ㄴ. 희생되다: (사람이)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다.
(7) ㄱ. 석방하다: (기관이 수감된 사람을) 교도소나 유치장 등에서 자유롭게 풀어 주다.
ㄴ. 석방되다: (갇힌 사람이) 풀려나 자유롭게 되다.

16) 陸儉明, 「有關被動句的幾個問題」, 『漢語學報』 2, 2004, 10면.
17) 유혜원, 앞의 글, 273면.

예(6)의 '희생하다'는 하나의 논항만을 갖는 자동사이고, '희생되다' 역시 하나의 논항만을 가지며 둘의 논항구조는 동일하다. 이 경우 '희생되다'에 대한 중국어 표현에서도 무표지로 대응된다. 예를 들면, '그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다'(他为国牺牲), '다수의 사람이 희생되다'(很多人丧命)와 같이 N1은 바뀌지 않는다.[18] 이에 속하는 동사에는 '감전되다, 긴장되다, 숙달되다, 통과되다, 흥분되다, 희생되다' 등이 있다. 그러나 예(7)에서는 '-하다'와 '-되다'에서 논항구조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다'의 논항구조는 '정부가 구속자를 석방하다'(政府释放囚犯)와 같이 'N1이 N2을 -하다'로 논항이 두 개이다. 그러나 '-되다'의 논항구조는 '포로가 석방되다'(俘虏被释放)와 같이 논항이 한 개뿐이다. 즉 '-하다'의 N1은 '-되다'에서 '~에 의해'로 나타낼 수 있는 '주체'로 논항구조가 변화된다. 이 경우 '-되다'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에는 대부분 '被' 등으로 피동 표지를 하게 된다. 이에 속하는 동사에는 '거론되다, 오염되다, 파견되다, 훈련되다' 등이 있다.

2) 'N1이 N2에 -되다' 구문

논항이 2개인 경우 중 'N1이 N2에 -되다'로 구성되는 구문은 총 64개인데 논항이 1개인 'N1이 -되다' 구문과 마찬가지로 중국어 대응형에 피동 표지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구문에서도 역시 피동 표지가 없는 경우가 36개, 피동 표지가 있는 경우가 28개로 중국어 대응형에 피동 표지가 없는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났다. 그러나 '-되다'와 결합하는 N의 의미속성은 다소 차이가 있다. 아래 〈표 4〉는 피동 표지가 없는 경우이고,

18) 물론 한국어 '-되다'에 어휘적으로 피동 의미가 없으므로 당연히 중국어 대응형에 피동 표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본고는 통사 표기가 다르면 의미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논항구조의 분석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의 하나이다. 비록 일부 '-되다'는 피동 의미가 없으며, '-하다'와 비교하여 'N1의 의미역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적인 논항구조는 다소 다르게 구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희생하다'는 '사람이'+'어떤 목적을 위해'+'바치거나 포기하다'로 구성되어 '대상' 논항이 추가될 수 있는 반면, '희생되다'는 '사람이'+'재난이나 사고로'+'목숨을 잃다'로 구성되어 '원인' 논항이 추가된다. 때문에 본고에서 분석한 논항구조는 '어휘 의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는 피동 표지가 있는 경우이다.

〈표 4〉 'N1이 N2에 -되다' 구문 중 피동 표지가 없는 경우

N1 / N2		생물		비생물		과정		대상	
		사람	단체	구체	추상	사건	현상	무엇	
생물	단체	2 (5.6%)	1 (2.8%)	1 (2.8%)					4 (11.1%)
비생물	구체	1 (2.8%)		1 (2.8%)	2 (5.6%)				4 (11.1%)
	추상	2 (5.6%)		1 (2.8%)		1 (2.8%)		2 (5.6%)	6 (16.7%)
과정	사건	2 (5.6%)			2 (5.6%)	1 (2.8%)			5 (13.9%)
장소	장소	1 (2.8%)		5 (13.9%)	1 (2.8%)		1 (2.8%)	1 (2.8%)	9 (25.0%)
대상	무엇	1 (2.8%)			2 (5.6%)			5	8 (22.2%)
합계		9 (25.0%)	1 (2.8%)	8 (22.2%)	7 (19.4%)	2 (5.6%)	1 (2.8%)	8 (22.2%)	36 (100%)

〈표 5〉 'N1이 N2에 -되다' 구문 중 '被''受''遭' 등 피동 표지가 있는 경우

N1 / N2		생물	비생물		과정	대상	
		사람	구체	추상	사건	무엇	
생물	단체	1 (3.6%)					1 (3.6%)
비생물	구체		2 (7.1%)	1 (3.6%)			3 (10.7%)
	추상	4 (14.3%)	1 (3.6%)	1 (3.6%)	1 (3.6%)		7 (25.0%)
과정	사건	1 (3.6%)				2 (7.1%)	3 (10.7%)
장소	장소	3 (10.7%)	2 (7.1%)	2 (7.1%)	1 (3.6%)	1 (3.6%)	9 (32.1%)
대상	무엇	1 (3.6%)		2 (7.1%)	1 (3.6%)	1 (3.6%)	5 (17.9%)
합계		10 (35.7%)	5 (17.9%)	6 (21.4%)	3 (10.7%)	4 (14.3%)	28 (100%)

N1을 비교해 보면, 〈표 4〉에서 무표지인 경우 '사람' 25%, '구체, 무엇'이 각각 22.2%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그러나 〈표 5〉에서 피동 표지로

대역되는 경우를 보면 '사람'이 35.7%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N1이 -되다' 구문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그 외의 의미속성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N2의 경우, 〈표 4〉의 무표지에서는 '장소, 무엇' 의미속성이 각각 25%, 22.2% 순으로 많았으며, '추상'이 16%로 그다음으로 많았고, 그 외의 경우는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표 5〉에서 피동 표지로 대역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장소'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추상' 25%, '무엇' 17.9% 순으로 나타났다.

'N1이 -되다'에서는 N1의 의미속성으로 [-생물]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와 달리 'N1이 N2에 -되다' 구문에서는 N1에 [+생물]인 '사람' 의미속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대부분 N1가 [-생물]이며 [+생물]인 경우는 무표지 피동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N1이 N2에 -되다' 구문에서 N1에 [+생물]인 '사람' 의미속성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N1이 -되다' 구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다'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8) ㄱ. 도취하다: (사람이 무엇에) 취한 듯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다.
ㄴ. 도취되다: (사람이 무엇에) 헤어나지 못하게 되다.
(9) ㄱ. 초대하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모임이나 자리에) 참석하기를 청하다.
ㄴ. 초대되다: (사람이 모임이나 자리에) 참석하도록 요청을 받다.

예(8)은 '-하다'와 '-되다'의 논항이 동일하며 '-되다' 동사가 중국어에서 주로 무표지로 대응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승리에 도취하다'(陶醉于胜利), '음악에 도취되다'(陶醉于音乐)처럼 논항구조가 변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동사로는 '노출되다, 소속되다, 정착되다, 편입되다, 통과되다, 당첨되다, 관계되다' 등이 있다.

예(9)는 '-하다'와 비교하여 '-되다'의 논항이 놓이는 위치가 바뀌며 논항구조가 변화한다. '-하다'는 ''N1이 N2을 N3에 -하다'의 구조인데. 그중 'N을' 성분이 '-되다'에서는 'N이'가 된다. 예를 들면 '손님을 집에 초대하다'(邀请客

人到家里)라는 구문에서 '손님이 행사에 초대되다'(受邀参加活动)와 같이 '손님을 초대하다'에서 '손님이 초대되다'로 변한다. 이 경우 '-되다'는 중국어에서도 피동 표지로 대응된다. 피동 표지는 '被''受''遭' 등으로 대응되는데, N2가 '무엇' 의미속성인 경우 '광고에 현혹되다'(被廣告迷惑), '그의 소설에 매료되다'(被他的小說迷住) 등과 같이 '被'로 표기하거나, N2가 주로 '추상' 의미속성인 경우 '사상에 감염되다'(受思想的感染), '편견에 구속되다'(受偏見的束縛) 등과 같이 '당하다, 받다'라는 의미인 '受'를 수반하여 피동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N2의 의미속성에 따라 중국어 대응형도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동사로는 '배치되다, 연행되다, 이용되다' 등이 있다.

이처럼 '-되다' 단어 자체로는 대응되는 중국어의 피동 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되다'의 논항구조와 그 논항의 의미속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3) 'N1이 N2로 -되다' 구문

위의 두 유형은 피동 표지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이와는 달리 'N1이 N2로 -되다' 구문은 피동 표지를 대응형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났다. 이를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6〉 'N1이 N2로 -되다' 구문 중 피동 표지가 없는 경우

N2 \ N1		생물	비생물		과정	대상	
		단체	구체	추상	사건	무엇	
비생물	추상		1 (7.7%)	2 (15.4%)		2 (15.4%)	5 (38.5%)
장소	장소				1 (7.7%)		1 (7.7%)
시간	시간				1 (7.7%)		1 (7.7%)
대상	무엇	1 (7.7%)	1 (7.7%)	1 (7.7%)		3 (23.1%)	6 (46.2%)
합계		1 (7.7%)	2 (15.4%)	3 (23.1%)	2 (15.4%)	5 (38.5%)	13 (100%)

〈표 7〉 'N1이 N2로 -되다' 구문 중 피동 표지가 있는 경우

N2 \ N1		생물	비생물		과정	대상	
		사람	구체	추상	사건	무엇	
생물	사람	1 (4.2%)					1 (4.2%)
비생물	구체		1 (4.2%)				1 (4.2%)
	추상	3 (12.5%)		2 (8.3%)		5 (20.8%)	10 (41.7%)
장소	장소					1 (4.2%)	1 (4.2%)
대상	무엇	2 (8.3%)	1 (4.2%)	3 (12.5%)	1 (4.2%)	4 (16.7%)	11 (45.8%)
합계		6 (25.0%)	2 (8.3%)	5 (20.8%)	1 (4.2%)	10 (41.7%)	24 (100%)

위 〈표 6〉과 〈표 7〉에 보이는 바와 같이, 피동 표지로 대응되는 경우가 24개로 무표지로 대응되는 경우인 13개보다 두 배 많게 나타났다. 그중 중국어 대응형이 〈표 6〉과 같이 무표지인 경우 N1의 의미속성은 '무엇' 5개, '추상' 3개, '구체, 사건' 2개로 분산되어 있는 반면, 〈표 7〉에서 피동 표지가 있는 경우에서는 '무엇'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무표지에 없던 '사람'이 6개로 그다음으로 많게 분포했다. 그다음은 '추상'이 5개로 분포를 보이고 있다. N2는 피동 표지 유무에 관계없이 '추상'과 '무엇'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N1의 의미속성이 같은 조건에서 피동 표지가 서로 다르게 대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우리는 '-하다'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논항구조에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에서는 N1의 의미속성이 '무엇'인 경우를 예를 들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10) 'N1무엇+이 N2추상/무엇+로' 무표지:
ㄱ. 변화하다: (무엇이)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지다.
ㄴ. 변화되다: (무엇이 어떤 상태로) 달라지게 되다.
ㄷ. 시작하다: (어떤 것이 다른 것으로) 순서의 처음을 삼다.
ㄹ. 시작되다: (어떤 것이 다른 것으로) 처음을 삼게 되다.

(11) 'N1무엇+이 N2추상/무엇+로' 피동 표지:
ㄱ. 묘사하다: (사람이 무엇을 특정한 형태나 상태로)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내다.
ㄴ. 묘사되다: (무엇이 특정한 형태나 상태로) 나타내어지다.
ㄷ. 간주하다: (사람이 사물을 무엇으로) 여기거나 생각하다.
ㄹ. 간주되다: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으로) 여겨지거나 생각되다.

예(10)에서 '-되다'는 'N1이 N2로 -하다' 구문과 동일한 논항구조를 갖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어에서는 무표지 피동문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這句話可以理解爲兩層意思), '나라가 둘로 분열되었다'(一個國家分裂爲兩個國家) 등이다.

그러나 예(11)에서와 같이 'N1이 N2를 N3로 -하다'의 N2는 '-되다' 구문에서 '~이'의 위치로 놓인다. 이때 중국어에서는 스스로 변화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피동 표지를 더할 필요가 있다. '-하다'의 논항구조에서 N1은 '-되다' 구문에서 피동 의미를 나타내는 '被'로 표기되어 논항구조가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공휴일로 지정되다'(被指定爲公休日), '과학은 의심할 바 없는 진리로 간주되고 있다'(今天的科學被視爲不容質疑的真理) 등과 같다.

4) 'N1이 N2에게 -되다' 구문

이 구문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총 19개이며, 피동 표지가 없는 것 9개와 있는 것 10개로 거의 반반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N1의 의미속성 분포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8〉 'N1이 N2에게 -되다' 구문 중 피동 표지가 없는 경우

N2 \ N1		비생물		과정	공간	대상	
		구체	추상	사건	장소	무엇	
생물	사람	1 (11.1%)	2 (22.2%)		1 (11.1%)	1 (11.1%)	5 (55.5%)
	단체	1			1		2

		(11.1%)			(11.1%)		(22.2%)
대상	무엇			1 (11.1%)	1 (11.1%)		2 (22.2%)
합계		2 (22.2%)	2 (22.2%)	1 (11.1%)	3 (33.3%)	1 (11.1%)	9 (100%)

〈표 9〉 'N1이 N2에게 -되다' 구문 중 피동 표지가 있는 경우

N1 / N2		생물	비생물		과정	대상	
		사람	구체	추상	사건	무엇	
생물	사람	2 (20%)	1 (10%)	2 (20%)	1 (10%)	1 (10%)	7 (70%)
	단체				1 (10%)		1 (10%)
대상	무엇	1 (10%)			1 (10%)		2 (20%)
합계		3 (30%)	1 (10%)	2 (20%)	3 (30%)	1 (10%)	10 (100%)

위 〈표 8〉과 〈표 9〉를 비교해 보면, N2의 의미에 매우 제한이 있는데 '사람, 단체, 무엇'만이 올 수 있다. N1에서는, 〈표 8〉과 같이 무표기의 경우 '장소'가 3개, '구체, 추상' 각 2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람'은 한 건도 없었다. 상대적으로 〈표 9〉에서는 피동 표지로 대응되는 경우 '사람, 사건' 각 3개, '추상' 2개의 순으로 '장소' 의미속성은 한 건도 없었다.

앞서 살펴본 구문들은 중국어에 피동 표기 유무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하다'와의 비교를 통해 논항구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N1이 N2에게 -되다' 구문은 N1의 의미속성에 따라 중국어 피동 표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N1장소+이 N2사람+에게' 무표지:
　　장소가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다
　　일이나 장소가 대상에게 소개되다
(13) 'N1사람/사건+이 N2사람+에게' 피동 표지:
　　사람이 경찰에게 체포되다

사람이 검찰에게 구속되다

위 예(12)와 (13)을 비교하면 무표지의 경우는 사실상 ‘~이 ~에 의해 ~에게 -되다’의 구문 구조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에 의해’라는 성분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N2에게’에서 조사 ‘에게’도 중국어 표현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역으로 대응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예(12)와 같이 ‘~에게’가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경우 ‘전시장이 시민에게 공개되다’(展館向市民開放)에서처럼 ‘공개되다’는 중국어도 무표지로 대응되지만, 예(13)에서 ‘~에게’는 ‘행위를 가하는 주체’인 경우로 ‘그는 경찰에게 체포되었다’(他被警方逮捕)와 같이 중국어 대응형에는 피동 표지 ‘被’가 쓰이고 있다.

이처럼 같은 구조로 보이는 구문이지만 그 논항성분의 의미속성이 달라 중국어 대응형이 결정된다. 또한 논항의 의미역에 따라서도 중국어 대응형도 다르게 나타난다. 때문에 중국어 대응형에 피동 표지를 해야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N1의 의미속성 이외에도 ‘조사’의 의미, 즉 논항의 의미역에 따른 분석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의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되다’에 대응하는 중국어 피동 표지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논항의 의미속성이 무엇보다 먼저 구분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N1이 -되다’ 등에서는 사실상 의미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중국어 대응형을 결정하는 명확한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의미속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 ‘-하다’와 비교하여 N의 위치 변화 여부를 통해 의미역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N1이 N2에게 -되다’ 구문 등과 같이 ‘조사’의 의미 자체에 명확한 의미역 구분이 있는 경우를 종합하여 대응되는 중국어에 피동 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5) ‘N1이 N2과 -되다’ 구문

다음은 ‘N1이 N2과 -되다’ 구문을 살펴보자. 수집된 ‘-되다’ 중에서 ‘~과’만 결합하는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 ‘~에’ 또는 ‘~로’와도 결합하여 구문을

구성한다.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무표지 피동의 경우 21개가 집계되었는데 구체적인 N의 의미속성을 제시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대응되는 중국어에서 피동 표지가 있는 경우는 총 3개가 있는데 그 수가 많지 않아 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표 10〉 'N1이 N2과 -되다' 구문 중 피동 표지가 없는 경우

N1 / N2		생물	비생물		대상	
		사람	구체	추상	무엇	
생물	사람	3 (14.3%)				3 (14.3%)
비생물	구체		7 (33.3%)			7 (33.3%)
	추상			2 (9.5%)		2 (9.5%)
대상	무엇				9 (42.9%)	9 (42.9%)
합계		3 (14.3%)	7 (33.3%)	2 (9.5%)	9 (42.9%)	21 (100%)

(14) 'N1사람/구체/무엇+이 N2사람/구체/무엇+과' 무표지: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관계되다 有關 ; 關系到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과 관련되다 有關的 ; 相關的
무엇이 다른 것과 직결되다 有直接聯系

(15) 'N1무엇+이 N2무엇+과' 피동 표지:
무엇이 다른 무엇과 분리되다 被分離 ; 被分開
무엇이 다른 무엇과 차단되다 被斷絕 ; 被封堵
무엇이 다른 무엇과 비교되다 被比較 ; 形成比較

위 예(14)는 'N1이 N2과 -되다' 구문의 중국어 대응형에 피동 표지가 없는 경우이다. 이 외에도 '결합되다, 조화되다, 연결되다, 연관되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15)는 중국어에서 피동 표지로 대응되는 경우로 '분리되다, 차단되다, 비교되다' 3개뿐이다.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의미상 '-되다'와 결합하는 한자어가 [+연결]인 경우는 중국어에서 피동 무표지를, [+분리, 해체]인 경우는 중국어 대응형에 피동 표지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분리, 해체]의

경우 자발적이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피동 표지를 써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6) 'N1이 N2에서 -되다' 구문

마지막으로 'N1이 N2에서 -되다' 구문에 해당하는 동사는 총 5개로 매우 제한적으로 구문을 구성한다. 'N1이 N2에서 -되다' 구문에 대응하는 중국어 중 무표지인 경우는 '시작되다' 1개인데 N2의 의미속성은 '장소', '사건' 두 개가 있다. 피동 표지로 대응되는 경우는 '소외되다, 제외되다, 해방되다' 3개가 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N1구체/사건+이 N2장소/사건+에서' 무표지:

자연물 따위가 어떤 장소에서 시작되다	源於	(N2: 장소)
어떤 일이 어떤 사건에서 시작되다	開始	(N2: 사건)

(17) 'N1무엇+이 N2단체/추상/장소+에서' 피동 표지:

무엇이 무리에서 소외되다	被冷落 ; 被排擠	(N2: 단체)
무엇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외되다	被排除 ; 被除外	(N2: 추상)
무엇이 속박하거나 가두던 것에서 해방되다	被解放	(N2: 장소)

예(16)에서는 N1이 '구체'나 '사건'이며, '산업 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되다'(工業革命從英國開始)처럼 중국어에서 무표지로 대역되었다. 그러나 예(17)의 경우 N1은 모두 '무엇' 의미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N1이 N2과 -되다' 구문과 마찬가지로 한자어가 [+분리, 분해, 격리] 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중국어 대응형으로 자발적이지 않은 의미를 나타내는 피동 표지가 쓰였다.

4. 나오며

본고에서는 '-되다' 동사를 논항구조에 따라 나누어 중국어 대응형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되다'와 결합하는 논항N의 의미속성을 기준으로 그와 대응

하는 중국어 표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논항구조에 따라 논항N을 담당하는 의미속성도 달라지는데, 주로 '사람, 단체, 구체, 추상, 사건, 공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피동 표지가 없이도 피동 의미를 나타내는 중국어의 특성이 논항N의 의미속성 및 논항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N1이 -되다' 구문에서 N은 주로 [-생물] 의미속성을 갖는다. 중국어에서는 무표지 피동문이 가능하여 피동 표지로 대응되는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

(나) 'N1이 N2에 -되다'에서 N1이 [+생물]인 '사람' 의미속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중 '-되다'의 논항구조가 '-하다'와 일치하여 논항에 변화가 없는 경우 중국어에서도 무표지 피동으로 대응된다.

(라) 'N1이 N2로 -되다'에서 피동 표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두 배 많게 나타났다. 그중 무표지인 경우 N1에는 '사람'인 경우가 전혀 없었다. 또한 '-하다'의 논항구조가 '-되다'와의 불일치 여부에 따라, 대응되는 중국어의 피동 표지 유무가 결정된다.

(마) 'N1이 N2에게 -되다'에서 무표지 피동의 N1에는 [+생물] 의미속성이 하나도 없었다. 그 외에 N2는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나 '행위 주체'를 나타내며 대응되는 중국어 피동 표지 유무가 다르다.

(바) 'N1이 N2과 -되다'와 'N1이 N2에서 -되다'에서 '-되다'와 결합하는 한자어의 의미특징은 [+연결] 또는 [+분리]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한자어의 의미특징은 중국어 대응형의 피동 표지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한국어는 어휘 활용형을 통해 통사 특징을 나타내는 언어이지만, 중국어는 어휘의 형태 변화가 적은 고립어로 단어 층위에서는 두 언어 간의 일대일 대응을 찾기는 어렵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찾기 위해 단어 층위의 비교가 아닌 두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논항구조를 통해 비교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어 '-되다'와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에 규칙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어학 교육 또는 한중 번역 측면에서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우인혜, 「“하다” 따위 용언의 피동 문제에 대하여」, 『새국어교육』, 48, 한국국어교육학회, 1993, 165-190면.

유혜원, 「중립동사 ‘명사-하다’에 대한 연구—‘명사-되다’, ‘명사-시키다’ 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57, 한국어학회, 2012, 272-298면.

이기동, 「동사 되다의 의미 분석」, 『동방학지』, 72,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1, 205-231면.

조평옥・옥철영, 「의미속성에 기반한 한국어 명사 의미 체계」, 『정보과학회논문지(B)』, 26-4, 한국정보과학회, 1999, 584-594면.

최윤, 「파생 동사 한자어 어근의 동사성과 논항구조」, 『어문론집』, 80, 중앙어문학회, 2019, 99-121면.

陸儉明, 「有關被動句的幾個問題」, 『漢語學報』, 2期, 2004, 9-15.

王芳, 『韓國語“漢字詞+되다”與漢語的對比研究』,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Mongolia-Korea Academy and Culture Forum, 2016.

王惠・詹衛東・俞士汶, 「“現代漢語語義詞典”的結構及應用」, 『語言文字應用』, 第1期, 2006, 134-141.

【Abstract】

Analysis of Classification of ‘Chinese characters + 되다’ and Chinese translation

Chang, Sun-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regularity when translating Korean ‘Chinese characters + 되다’ into Chinese. Some had passive signs in the corresponding Chinese, but some hadn’t.

The argument structure of Korean ‘Chinese characters + 되다’ can be divided into six types. there are ‘N1이 -되다’, ‘N1이 N2에 -되다’, ‘N1이 N2로 -되다’, ‘N1이 N2에게 -되다’, ‘N1이 N2과 -되다’, ‘N1이 N2에서 -되다’. According to the argument structure, the semantic features of nouns serving as arguments can also be different. There are people, groups, concrete, abstract, events, spaces, etc.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Chinese is a language with very few morphological changes, and Argument structure and argument semantics play a decisive role in passive marking or not.

This study found that Korean and Chinese have different grammatical systems, but the correspondence of argument structure has regularity.

Keywords: Argument structure, Semantic feature, Chinese words, Passive marking, Chinese translation.

접수일: 2021.06.18. ‖ 심사일: 2021.07.08. ‖ 게재확정일: 2021.08.25.

*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